

燕岩小說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二重性과 그 意味*

권우행** · 정규식***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작가 의식의 이중성과 그 의미 |
| II. 연암 소설에 나타난 士와 民 | 1. 작가 의식의 이중성 |
| 1. 전통적 士와 民 | 2. 이중성의 사회·역사적 의미 |
| 2. 작품 속의 士와 民 | IV. 결론 |

I. 서론

燕岩 朴趾源(1737-1805)은 유교이념과 班常의 신분제도에 바탕한 조선의 중세질서가 무너지고, 토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民生이 파탄해 가던 혼란의 시기를 산 지식인이었다. 이런 시기를 맞아 연암은 민생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을 위한 학문으로서 이용후생의 실학을 주장하고, 조선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체반정'의 맞바람을 무릅쓰고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새로운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放瓊閣外傳』에 실린 傳 작품들¹⁾과 『熱河日記』(1780-1783)는 연암의 이러한 사상과 의지가 형상화된 글쓰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연암 및 연암의 소설작품들에 대해서는 중세적 질서에 대한 개혁과 근대지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김태준이 “兩班傳에서는 兩班階級の 打破를 論하며 虎叱文에서는 儒徒들의 羊頭狗肉의 假面을 痛罵하며 烈女咸陽朴氏傳에서는 ‘守節의 不必要를 論하며 더구나 …(중략)… 許生傳에는 繁文縟禮, 軟骨苛禮의 개혁을 주장하였다.”²⁾고 한 이래, 김일근, 이가원, 이재수 등 60년대의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신분제에 대한 작가의식의 한계와 시대적 한계를 부분적으로 지적하면서도, 논의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중세개혁과 근대지향이라는 시각이 연암과 그의 소설에 대한 기본적 인식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볼 수 있다.³⁾ 연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다만 문학론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나 정치·경제학 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남한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다가, 1970년대 김일성의 교시(주체사상) 이후 봉건적 한계가 강조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⁴⁾

연암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양상이 각각 혹은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확실히 연암의 소설에는 ‘근대지향성’이라 할 만한 것과 ‘중세성’ 혹은 ‘봉건성’

1) 『放瓊閣外傳』의 전 작품들은 『廣文傳』(18세, 1754)을 시작으로 『馬駟傳』·『穢德先生傳』(19세, 1755), 『閔翁傳』(21세, 1757), 『兩班傳』·『廣文傳後序』(28세, 1764), 『金神仙傳』(29세, 1765), 『易學大盜傳』·『鳳山學者傳』(30세, 1766) 등이 이어졌고, 『虞裳傳』 또한 30세 무렵에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京城, 朝鮮語文學會, 1931), 177쪽.

3) 연암 문학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은, 민병수 (『박지원 문학의 연구사적 검토』, 『한국학보』13, 일지사, 1978), 강동엽 (『80년대 이후 연암문학 -연구경향과 그 전망-』, 『한국한문학회연구』11, 한국한문학회, 1988), 두창구 (『연암 연구사에 대한 고찰』, 『관대논문집』19, 관동대학교, 1989)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양반전』과 『허생전』, 『호질』에 대해서는 『소설연구사』(월인, 2002)에 실린 김명순, 두창구, 김진영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4) 김영, 『연암소설에 대한 남북한 문학사의 서술시각』, 『열상고전연구』5 (열상고전연구회, 1992) 참조.

이라 할 만한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앞선 연구들에서는 근대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그 ‘한계’를 지적하거나, 전근대성을 확대·강조하여 그 ‘봉건성’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연암 소설의 다의성을 밝히려는 시도도 있었다. <양반전>은 정선양반이 가장 양반다웠으나 결국 양반을 포기해야 하는 존재모순적 아이러니와 그러한 양반에 대한 천부의 신랄한 비판·풍자가 교직된 다의성을 띤 작품이라 하였다.⁵⁾

그러나 선행연구의 이러한 인식은 특정 작품이나 연암에 대한 부분적 이해 틀로서는 가치 있으나 연암 소설과 그의 작가 의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나아가 연암 소설에 공존하는 ‘근대성’과 ‘전근대성’은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시각이다. 그러므로 ‘근대성’과 ‘전근대성’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계’ 혹은 ‘다의성’⁶⁾이라는 용어 또한 적절하지 못하며, 그것은 마땅히 ‘이중성(二重性)’⁷⁾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이현홍, 『<양반전>의 송사소설적 구조와 의미』, 『고전소설연구입문』(세종출판사, 1996).

6) ‘다의성’이라는 용어는 ‘모호성(ambiguity)’이라는 말과 그 의미 자질이 비슷하다. 이 말은 원래 문체적 차원에서의 결점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의미적 차원에서 ‘다중 의미’ 혹은 ‘다층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중적 의미로서의 다의성은 구조적 치밀성을 띤 작품이나 입체적 구성을 띤 작품의 의미 작용 편폭이 다양화 된다는 것이므로, 문학 작품 전반에 사용가능한 용어이다. 따라서 특정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특징을 구체화하는 데는 적합지 않다고 본다. 즉, 연암 소설 및 작가 의식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로는 한계가 있다.

7) 이 말의 작품 내적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성은 표리부동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성질이 한 가지 사물에 공존한다는 축자적 의미에 따라, 모순된 상황 하에 있을 수 있는 한 개인의 의식적 분열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암은 양반이라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선형적 士 의식과 급변하는 전환기 사회 현실의 괴리에서 심리적 균열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균열은 주체성 상실이나 방향성 결핍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세계-내-존재인 고뇌하는 지식인이 가질 수 있는 진실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방경각외전』에 실린 소설작품들과 『열하일기』의 <허생전> 및 <호절>을 대상으로 하여, 연암의 소설에 나타난 이중성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암 소설의 핵심적 등장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는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을 작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실상 속에 내포된 작가의식의 이중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이중성이 가지는 의미를 연암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연암 소설의 실상과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암 문학과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하나의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II. 연암소설에 나타난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

1. 전통적 士와 民

연암의 소설작품에 나타난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士와 民의 전통적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암소설에 나타난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과 그 의미는 전통적 개념과 비교할 때 더 뚜렷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士(선비)는 ‘덕행과 학식을 갖춘 사람’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도에 뜻을 두고 仁義를 실천하는 사람’을 선비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는 ‘덕이 있고(有德人), 독서하는 사람(讀書人)’이란 뜻⁹⁾으로 쓰였다. 그리고 선비의 행동과 관련하여 지조와 절의를 매우 중히 여겨 왔다.¹⁰⁾ 연암 또한 “讀書曰士”(〈양반전〉)라 하고, “명예와 절조”¹¹⁾를 강조한다는

8) 有德行學識之人, 『中文大辭典』

9)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 연구』(일조각, 1981), 16쪽.

10) 송재소, 『선비정신의 본질과 역사적 전개』, 『한문학보』2(우리한문학회, 2000); 이동환, 『선비정신의 개념과 전개』, 『대동문화연구』38(대동문화연구원, 2001) 참조.

11) 不飾名節 徒貨門地 酷嚮世德 商賈何異, 『放瓊閣外傳』, 『自序』.

점에서 전통적 士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民(백성)은 신분적으로 士 아래의 범주에 속하는 하층 민중이면서, 정치적으로는 통치의 대상인 피지배 계층이며, 경제적으로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民은 天의 개념과 동일시되어 통치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획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적 전통에서 民은 '권력을 창출하는 바탕이면서 권력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이중성을 함축'¹²⁾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士農工商의 四民觀에 따른 하등신분이란 개념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民의 전통적 개념은 조선후기에 들어와 민중의 각성과 더불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일찍이 許筠(1569-1618)은 <豪民論>에서 민중봉기에 의한 역성혁명을 들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민중을 논했고, 李瀾(1681-1763)·丁若鏞(1762-1836) 등 실학자들은 士農合一을 주장하여 전통적 사민관을 극복하고자 했다.¹³⁾

2. 작품 속의 士와 民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士와 民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변화가 나타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 바로 연암의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연암의 작품에 나타난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자.

먼저 士(양반) 계층의 실상은 연암소설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양반전> 과 <허생전>, <호질> 및 실전된 <역학대도전>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양반층의 실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인으로서 양반은 비생산적이며 무능한 계층이다. <양반전>에서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부임하는 군수마다 으레 몸소 가서 경의를 표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식(糧食)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관가에 수천 섬의 환곡 빚을 지게 되고, 옥에 갇힐 처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마침

12) 윤천근, 『유학의 民』, 『퇴계학』5(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93), 34-35쪽.

13) 실학자들의 民 개념에 대해서는, 金泳鏞, 『實學에 있어서의 民概念의 새로운 전개』, 『동양학』16(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6 참조.

내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팔아 빚을 갚고 평민 신분이 되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당대 양반에 대한 연암의 비판은, 작품에서 밤낮 울기만 하는 존재로 형상되거나 이름과 달리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양반’이라는 아내의 언어유희로 희화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양반층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부당한 특권으로 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존재이다. <양반전>의 2차 증서에서 ‘세상에서 양반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고 하며, 문과의 흥패는 곧 ‘돈자루’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깊숙한 방 안에서 기생이나 놀리고’ 백성들에게 빼앗다시피 한 곡식으로 ‘鶴을 기르는 일’이라고 했다. 또 시골의 궁한 선비라 하더라도 양반의 특권으로 백성들에게 武斷的인 횡포를 부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백성들은 감히 원망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변변치 않은 학문으로 벼슬을 하거나 출세의 지름길로 삼는다. 한 마디로 그들은 백성들에게 ‘도둑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¹⁴⁾

다음으로 그들은 명분론을 바탕으로 송명배척의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나, 실제적으로는 구체적 대안이나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공허한 명분론자들이다. 이를 테면, <허생전>에서 허생은 널리 인재를 구하고 현안에 대한 계책을 듣고자 한다는 이완 대장을 만나 세 가지의 계책을 제시한다. 초야의 인재를 천거하는 것, 송명을 위해 종실의 자녀와 명의 유민(流民)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 극청을 위해 국중의 자제들을 뽑아 청나라에 가서 과거를 보고 장사하게 하여 그곳의 호걸들과 결탁하면서 한편으로는 청나라 사정을 살펴 국치를 씻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완은 당대 사대부들의 반발을 염려한 듯, 모두 어렵다는 대답을 할 뿐이다. 이에 분개한 허생이 ‘임금의 신임 받는 신하가 겨우 이 모양이냐!’고 호통치며 칼로 찌르려 하자, 이완은 담을 넘어 달아나 버린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연암은 실질적 정책은 전혀 없이 공허한 명분론에 집착하는 당대 사대부층의 완고하고 표리부동한 실상과 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士는 학식과 덕행을 내세우지만, 그 또한 관념적 허위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호절>의 북곽선생은 나이 마흔에 교정한 책이 일만 권이고,

14) 『방경각외전』의 서문에 따르면, 실전 작품인 <역학대도전>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창작되었다.

九經의 뜻을 부연하여 엮은 책이 일만 오천 권으로 천자와 제후에 이르기까지 그 학덕을 존승받는다. 또한 이웃의 동리자라는 과부는 그 절개가 뛰어나 역시 천자와 제후들의 가극함을 얻는다. 그러나 사실 동리자는 각각 성이 다른 아들이 다섯이나 있으며, 북곽선생 또한 동리자와 간통하는 관계이다. 아들들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던 북곽은 뚱뚱에 빠지며, 거기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범에게 목숨을 애걸한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도 북곽은 시경 등의 경전 구절을 외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북곽의 표리부동하고 간사한 행위를 통해 연암은, 학식과 도덕으로 위장한 당대 사계층의 위선적인 실상을 여지없이 희화화하고 폭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관직에 종사하는 大夫에서 學德의 군자, 독서인, 시골의 궁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양반을 등장시켜 그들의 부정적인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반면, <광문전>을 비롯한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김신선전>, <우상전> 및 실전의 <봉산학자전> 등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民을 등장시켜, 조선후기 民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 민중들의 실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관념적 위선이나 공허한 명분론에 집착한 양반들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다. <양반전>에서 양반의 아내는 ‘양반’이란 신분의 명칭을 ‘한 낭반’이라는 화폐 단위로 바꾸어 생각할 만큼 현실적이다. 허생의 아내 또한 굶주림을 참다 못해 ‘과거도 보지 않을 거면서 글은 읽어 무엇하느냐?’고 항의하며, 장인노릇이나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허생을 비웃는다.¹⁵⁾ 민옹의 아내 또한 나이 70이 되도록 바람벽에 포부만 적어 놓은 남편에게 ‘기이한 피를 다 어디에 쓰려는가’하고 비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암은 주로, 실제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성들의 입을 빌려 당대 사계층의 비현실성을 비웃고 민중들의 현실주의적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연암은 앞서 나아가간 여성과 관념에 사로잡혀 뒤쳐져 있는 士를 대립시켜 士의 무능력과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5) 양반의 아내도 양반이라 할 수 있으나, 그들의 비판은 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문전>과 <마장전>에서는 거지와 말거간꾼을 등장시켜, 당대 하층민들의 ‘信義’에 바탕한 인간적 삶과 友道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의는 전통적으로 사계층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과 권세만을 좇는 세상사람에게는 서로 의심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신의의 덕목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런 현실에서 남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신의를 중요시하는 광문이나, 세도와 잇속을 멀리하고 참다운 우정을 나누고자 하는 송옥, 조탑타, 장덕홍 3인의 행위는 참으로 세상에서 귀한 것이다. 연암은 신의에 바탕한 이들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당대 하층민들의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실상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덕선생전>의 엄행수는 인분 처리를 직업으로 하는 천한 사람이지만, 당대의 사대부들 모두가 스승으로 삼기를 바라는 선골자의 벗이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달했다 하여 교만하지 않은 것은 선비들조차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엄행수는 가난한 음식으로도 배불러하고, 새 옷을 사양하며 인분을 저 나르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니 참으로 분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덕을 갖춘 선골자조차 감히 ‘벗’이라 하지 못하고 ‘스승’으로 여겨 ‘예덕선생’이라 부른다. 이러한 엄행수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연암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현실적 삶에 만족하는 당대 하층민들의 미덕과 긍정적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암은 당대의 민들에게서 사대부들을 능가하는 비범한 능력을 발견하고 있다. <민옹전>의 민옹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하며 말을 잘하고, 옛 사람들의 기이한 절개를 기린 인물이다. 또 일곱 살 때부터 일흔이 넘을 때까지 벽에 잠언을 써 붙여 스스로 분발하고 경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잠시 첩사의 벼슬을 얻었다가 스스로 그만 두거나 세상 사람들을, 민중들의 삶을 곱아먹는 황충에 비유할 만큼 세상을 보는 안목도 날카롭다. <김신선전>의 김흥기 또한 신선이라 불릴 만큼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우상전>의 이언진 또한 중인의 역관으로서 일본에서 그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현실적으로는 불우지사라고 할 수 있다. 민옹이 다시는 벼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나 김흥기가 벽곡을 하고 세상을 등진 것은, 스스로 현실에서 그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언진 또한 그 명

성이 국내에서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상층에는 그 행색과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양반 사대부들 못지 않은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연암은, 조선후기 民의 또 다른 측면의 실상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다양한 종류의 하층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에서 당대 民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공허한 관념이나 명분보다는 현실주의를 추구한다. 그리고 권세와 잇속을 추구하는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신의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의 타고난 분수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대부 못지않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연암은 당대의 하층민들에게서 삶의 긍정적 속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民의 실상은 앞에서 제시한 士(양반)의 실상과는 매우 상반된다. 즉 연암의 소설작품들에 나타난 士와 民의 구체적 실상은 士(양반) 계층의 부정적 속성과 하층민들의 긍정적 속성의 대조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조적 실상의 제시를 통해 연암은 당대 士 계층의 부정적 속성을 비판하고, 民의 현실적 우월성 및 그들에 대한 연암 자신의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III. 작가의식의 이중성과 그 의미

1. 작가 의식의 이중성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당대 士 계층의 부정적 속성을 비판하고, 民의 삶에서 긍정적 속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연암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을 두고 초기 연구자들이 말한 것처럼 양반계급의 타파를 논한 것이라거나, 반봉건의 근대사회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

16) 『방경각외전』의 자서를 볼 때, 실전된 <봉산학자전> 또한 民의 이러한 실상을 드러낸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연암은 자신의 소설작품들에 형상화된 민의 우월성과는 달리, 철저하게 士意識을 강조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의 인식세계에서 士는 ‘하늘이 내린 벼슬’¹⁷⁾이며, ‘사농공상의 네 갈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¹⁸⁾이다. 뿐만 아니라 “士의 학문은 농업과 공업, 상업의 이치를 겸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사의 연구를 기다린 다음에야 이룩되었다. 또한 그러한 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士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¹⁹⁾라고 하여, 민에 대한 士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생은 변씨에게 “그대가 어찌 장사치로 나를 대하는가.”²⁰⁾라며 화를 냈던 것이다. 이 말에서 허생은 상인에 대해 ‘賈豎’라고 하여, 상인에 대한 경멸의 뜻(豎)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연암은 그의 소설작품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士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우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연암의 이러한 의식은 서얼차별 철폐를 주장한 상소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가 서얼차별의 부당함을 주장한 근거로서 제시한 “성인들의 정치에는 사에 귀천이 없었다.”라거나, “서얼이 적자와는 차등이 있지만, 그 가계를 돌아보면 또한 사족이다.”, “우리나라의 서얼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여 문벌이 혁혁한데, 어찌 그 어미의 족속이 비천하다고 하여 본종의 고귀함을 업신여기는 것이 옳단 말인가.” 등의 표현²¹⁾에서, 士族으로서 일반 백성들과 변별하고자 하는 의식세계가 드러난다.

한편, 연암은 『방경각외전』의 서문에서 봉우유신(信)을 으뜸 전체를 통괄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²²⁾ 그리고 <광문전>이나 <마장전> 등의

17) 士迺天爵, 『放瓊閣外傳』, 『自序』.

18)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兩班傳』.

19) 士之學 實兼包農工賈之理 而三者之業 必皆待士而後成 夫所爲明農通商惠工也 其所以明之通之惠之者 非士而誰也, 『課農小抄』, 『諸家總論』.

20) 君何以賈豎視我也, 『熱河日記』, 『許生』.

21) 聖人致治 士無貴賤 (….) 夫庶孽之與正嫡 誠有差等 而顧其家世 亦一士族 (….) 況國朝所謂庶孽 世有簪纓 門閥輝赫 則寧可以母族之卑微 混賤其本宗之華顯也哉, 『擬請疏通疏』.

22)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士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所以居後 迺殿統斯.

소설작품에서도 이러한 인식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언뜻 연암이 군신이나 부자, 장유의 수직적·봉건적 질서를 부정하고 수평적이고 근대적인 사회질서를 지향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연암의 학문은 유교의 성현과 경전에 뿌리를 둔 것이었고, 그의 실험도 결국은 도덕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훈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신뢰를 간직하고 있었다.²³⁾ 결국 연암이 믿을 강조한 것은 군신과 부자, 장유, 부부의 수직적 윤리 또한 궁극적으로 믿음에 바탕한다는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의 이러한 인식은 신라 화랑의 세속오계에서 믿을 강조하여 상하층의 국가적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결국 연암은 후학들의 긍정적·적극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로는 양반과 평민으로 대별되는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士(양반) 중심의 중세적 질서를 옹호하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다. 연암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역사발전단계론에 근거하여 그 시대적 한계로 인식하거나,²⁵⁾ 그의 전작품들이 생산된 청년기 연암의 의식이 미숙한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²⁶⁾ 혹은 북한은 경우 이러한 측면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연암의 봉건성을 비판하기도 한다.²⁷⁾

그러나 연암의 소설작품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은 연암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작용한 단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암 이전에 이미 이익은 士農의 합일을 주장하였고, 후배인 정약용은 민중적 입장에서 경전을 재해석하는 등 신분적 차등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었다.²⁸⁾ 또 연암이 자신의

23) 김문용, 「연암 박지원」, 『한국인물유학사』4(한길사, 1996), 1576-1577쪽.

24) (세속오계의) '交友以信' 역시 유교적인 신의를 평범한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서기석에 나타난 내용이나, 사다함의 예에서 보듯이, 約死友 하고 이것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는, 유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떠한 신앙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참조.

25) 金泳, 「燕岩의 '士'意識과 讀書論」, 『동방학지』53(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139쪽.

26) 이원수, 「양반전과 허생전 -그 설문과 해답」, 『연민학지』3(연민학회, 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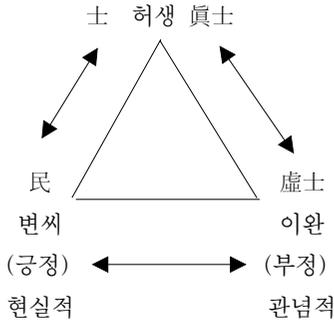
27) 김영, 앞의 논문(1992) 참조.

전작품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서문을 쓴 것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첫 작품인 <광문전>을 지은 뒤 20년쯤 뒤이며 <양반전>을 짓고 나서도 10년쯤 뒤의 일이다. 과거 습작·청년기의 작품을 모아 서문을 짓고 새로이 묶은 것으로 볼 때, 연암은 이 작품들에 대해서 뚜렷한 작가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의 미숙이나 한계 등으로 연암의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연암의 소설작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士와 民에 대한 모순적 형상은 작가 의식의 이중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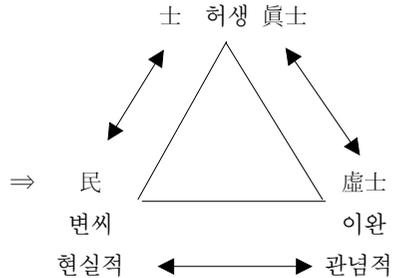
따라서 연암의 소설작품에 나타나는 이중성은 연암의 士意識과 그에 따른 자의식의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士로서의 전통적 자부심과 사회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당대의 사회현실과 그에 따른 자신의 현실인식을 소설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이중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작품이 <허생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연암 자신을 우의한 인물로서 허생과, 긍정적 民으로서 변씨, 그리고 부정적 士(양반)로서 이완이 삼각형의 구도로 등장한다. 변씨는 성공한 상인으로서, 단번에 허생의 초라한 외모 속에 숨어 있는 비범함을 알아보고 생면부지의 허생에게 거금을 꾸어준다. 반면 이완은 허생의 비범함을 듣고서도, 공허한 명분론에 집착하여 허생의 계책을 수용하지 못한다. 허생은 변씨의 도움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지만, ‘장사치로 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 民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이완에 대해서는 숫제 무시하거나 수용되지 못할 게 뻔한 계책을 제시하여 그를 꾸짖음으로써, 역시 士階層으로서의 동질성을 스스로 파괴한다. 즉 허생은 긍정적인 변씨(民)와 부정적인 이완(士)의 정점에 위치하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우월적인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작품 내적 구조>



<지향 구조>



<허생전>의 이러한 삼각 구조는 <예덕선생전>에서 선술자 - 엄행수 - 자목, <광문전>에서 (나) - 광문 - 世人 등의 관계와 같이, 그의 대부분 작품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연암은 조선후기의 士·民의 현실을 반영하여 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배사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士를 우월적 지위에 놓음으로써 선비로서의 자긍심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 의식이 구조화된 그의 소설 역시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2. 이중성의 사회·역사적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 소설의 이중성은, 연암의 선비로서의 자긍심 및 사회적 책임의식과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한 연암의 인식세계가 교차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연암 소설의 실상과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암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서 영·정조의 통치 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들어와 조선은 본격화된 붕당정치에 따라 몇 차례의 환국을 거친 후,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가 수립되었다. 비록 영·정조의 탕평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노론의 일당 대세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일당

의 전제는 양반 세력의 균형 위에 서야만 안정될 수 있는 왕정이나 유교 관료 정치에 파탄을 가져와,²⁹⁾ 19세기 외척 중심의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으로 농업 기술 및 상공업의 발달로 상품화폐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신분제에 바탕한 조선의 사회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권력 경쟁에서 소외된 양반층의 일부는 몰락하여 평민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고, 부를 획득한 일부의 평민들은 납속책이나 족보를 사는 등의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경영형 부농의 형성과 양반 지주층의 토지 검병이 확대되면서, 토지에서 이탈된 무전농민들은 조선 각지를 떠돌며 광범위한 부유(浮游)계층을 형성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 16세기 이후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민중들의 조직적 저항은 이 시기에 들어와 점점 조직화되고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연암이 활동했던 시기는 붕괴의 위기에 놓인 조선의 중세적 지배 질서를 복구시켜 그것을 더욱 굳히려는 지배층의 수구적인 노력과, 한편으로는 이러한 봉건적 억압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저항이 한층 강화되어 양자의 전격적인 충돌이 잠재된 시기였다. 한편 임병 양란의 극복을 위해 강조되었던 예론과 북벌론은, 이 시기에 들어와 교조화되면서 공허한 명분론으로 경직되어 민족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양반층의 부패와 타락, 민중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화되고, 민생은 파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요컨대, 연암이 활동했던 18세기 후반은 경직된 통치 체제와 민중의 저항, 지배층의 부패 타락 및 민생의 파탄 등으로 국가의 지배질서가 근본적으로 동요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배경 속에서 연암은 ‘실학적 국가발전론’을 주장하여 당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³⁰⁾ 이러한 연암의 실천의지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연암의 소설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암의 소설들이 가지는 이증성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9) 韓祐勳, 『韓國通史』(개정판) (을유문화사, 1987), 312쪽.

30) 연암의 ‘실학적 국가발전론’에 대해서는 김정호, 『연암 박지원의 개혁사상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권 2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士로서의 자의식과 士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절실하게 느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선비의 독서는 혜택이 온 세상에 미치고 그 공이 만대에 드리워진다”(原士)거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학’을 강조했으며, “실학을 하지 않는 선비에게 게으르고 무지한 백성을 거느리게 하는 것은 곧 술 취한 사람에게 소경을 돕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³¹⁾ 등의 말로 사계층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백성들은 선비의 덕택을 입으며, 게으르고 무지하다 하여 은근히 士의 우월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연암은 “선비의 독서는 혜택이 온 세상에 미치고 그 공이 만대에 드리워진다”³²⁾거나, “농업을 밝히고 상업을 통하게 하며 공업을 좋게 하는 사람은 곧 선비”³³⁾라 하여, 士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세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연암은 士의 개혁만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며, 士가 民을 이끌어갈 주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당대 士계층의 현실은 연암의 士개념과는 너무나 판이하였다.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양반전>이나 <허생전>, <호질> 등의 작품에 묘사된 士계층은 인간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 의식적인 면에서 다른 작품들에서 묘사된 하층민들보다 열등한 존재들이다.

여기에 연암의 소설들에서 民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의미가 드러난다. 즉 연암이 당대의 양반층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하층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대 民의 긍정적 속성을 통해 士계층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암의 의도는 <광문전>과 <예덕선생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광문전>의 광문은 수표교 아래에서 빌어먹고 살던 거지 출신이지만, 진실한 사람됨을 바탕으로 시정 상인들의 신용거래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의가 높은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묵묵히 삶을 경영하면서 헛되이 부귀공명을 바라지 않고, 업의 귀천에

31) 嗚呼 今而浮華不學之士 率其惰窳無知之眚 卽何異於使醉人相瞽哉. 『課農小抄』, 『諸家總論』.

32)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燕岩集』卷10, 『原士』.

33) 夫所爲明農通商惠工也 其所以明之通之惠之者 非士而誰也. 『課農小抄』, 『諸家總論』.

연연치 않으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리하여 선굴 자라는 선비는 똥 푸는 직업을 가진 엄행수를 진실한 벗으로 사귀면서, 이 사실을 타하는 자목이란 제자에게 그의 사람됨과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광문전>에서는 빌어먹는 거지 출신인 광문의 폭넓은 신용이 곧 당시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회소(社會素)이므로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은 진정한 선비는 배움의 대상을 가릴 것 없이 걸가는 사람이나 집의 종복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³⁴⁾

다시 말해 연암은 자신이 속한 계층인 양반들이 쓸모없는 허위의식과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비록 하층민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인간적 성실함과 신의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암의 생각은 조선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北學論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연암은 작품을 통해 당대 士계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의식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士로 고양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士의 전형으로서 <허생전>의 허생을 제시했다. 허생은 첫째 독서인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였다. 고요한 가운데 세상을 구할 독서에 열중하였고, 뜻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상업과 무역을 통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여 세상을 경륜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였다. 처음 보는 번씨와는 신의로 통하였고, 물욕에 굴하지 않으며 공허한 명분론에 경직된 당대의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또 당대의 민족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허생은 근대 양심적 인텔리의 사명감과 매우 상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연암 소설의 이중성은 궁극적으로 연암의 士意識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연암은 18세기의 조선사회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질서가 붕괴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 당대 士계층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진단하고, 병들어 가는 조선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士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암은 벤치마킹(benchmarking)³⁶⁾의 대상으로 긍정적 하층민들을 묘사하여, 그들

34) 『北學議』, 『北學議序』

35)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창작과비평사, 1983), 68쪽.

삶의 핵심 동인인 성실과 신의를 추출하여, 士의식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고양된 士의식을 바탕으로 병들어 가는 조선사회의 처방제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국 연암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이중성은 民을 통한 士계층의 각성과 그 사회적 책임의식의 강조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연암의 이러한 작가의식은 당대의 민족현실을 정확히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 민중의식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민중들 사이에서 평등사상에 바탕한 민중해방과 근대적 사회에 대한 욕구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여전히 중세적 의식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후기가 여전히 봉건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최근 역사학계의 반성적 논의와, 19세기 초 왕정타파를 내세운 이필재 등의 변란 세력이 민중들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당대 민중의식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士의 사회·역사적 역할과 민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한 연암의 작가의식과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연암의 소설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연암의 소설 속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이중성과 그것의 의미 지향을 살펴보았다. 연암 소설의 이중성이란 士와 民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사유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한계성 혹은 모순성이라는 부정적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대의 士를 무능하고 관념적이며 허위와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비생산적인 존재로 규정하지만, 그것이 士 계층 자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작품 속에서 民을 신의가 돈독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 역시 士와 民

36) 벤치마킹이란 특정분야의 우수한 상대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지침 및 과정 등을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을 말한다.

의 신분적 차이를 철폐하자는 근대적 평등 사상의 언표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전환기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명감과 같다. 연암 역시 변화하는 세계와 변화를 거부하는 조선의 옛갈림을 묵도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연암의 기호가 바로 소설 작품들이다. 그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士의 변화만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암은 그 변화의 지침들을 바로 民의 삶 양태 속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것이 연암 소설의 이중성이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은 모순적 태도나 신분적 한계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연암 소설을 읽어낸다면 연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연암 소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글쓰기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승(制勝)과 합변(合變)으로 요약되는 그의 글쓰기와 소설 작품의 이중성은 연암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연암 박지원, 이중성, 士의식, 民, 사유방식, 한계성

참고문헌

『燕巖集』

『北學識』

『課農小抄』

강동엽, 『80년대 이후 연암문학 -연구경향과 그 전망-』, 『한국한문학회연구』T1
한국한문학회연구회, 1988.

김문용, 『연암 박지원』, 『한국인물유학사』4, 한길사, 1996.

김 영, 『燕岩의 ‘士’意識과 讀書論』, 『동방학지』53,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_____, 『연암소설에 대한 남북한 문학사의 서술시각』, 『열상고전연구』5, 열상
고전연구회, 1992.

김영호, 『實學에 있어서의 民概念의 새로운 전개』, 『동양학』T6,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86.

김정호, 『연암 박지원의 개혁사상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22권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京城: 朝鮮語文學會, 1931.

두창구, 『연암 연구사에 대한 고찰』, 『관대논문집』T9, 관동대학교, 1989.

민병수, 『박지원 문학의 연구사적 검토』, 『한국학보』T3, 일지사, 1978.

송재소, 『선비정신의 본질과 역사적 전개』, 『한문학보』2, 우리한문학회, 2000.

윤천근, 『유학의 民』, 『퇴계학』5,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93.

이동환, 『선비정신의 개념과 전개』, 『대동문화연구』38, 대동문화연구원, 2001.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1.

이우성,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비평사, 1983.

이원수, 『양반전과 허생전 -그 설문과 해답』, 『연민학지』3, 연민학회, 1995.

이현홍, 『양반전의 송사소설적 구조와 의미』, 『고전소설연구입문』, 세종출판사,
1996.

한우근, 『韓國通史』(개정판), 을유문화사, 1987.

<Abstract>

The Meaning and Dualism of Yeon-am's Novel

Kwon, Woo-Haeng · Chung, Ku-Si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or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dualism in Yeon-am's novel. The dualism of Yoen-am's novel, it is caused by the author's unique thinking method about a scholar and the common people and it's limitations and contradictoriness don't remain in negative meaning. He prescribed that a scholar is inability, ideal and they are unproductive existences captured by fiction and hypocrisy. However, it doesn't mean to deny the class of scholar itself. On the other hand, he describes that the common people are faith and they do their best for their own job because they think all legitimate trades are equally honorable. This is also wrong to interpret that as modernistic equalitarianism to abolish the disparity in social standing between a scholar and the common people.

The effort to try to find alternative plan for future is the same as a mission for the intellectuals who live the society in transition. Yoen-am also didn't pray silently variance between changing world and refusing change of Cho-sun. His novel is Yoen-am's sign for that. He want to deliver a message through his novel. The message is only the change of the scholar class can save the crisis of Cho-seon and he finds the guide of change in the life of common people. This is the dualism of Yeon-am's novel. Therefore, the dualism doesn't have negative meaning like contradictory attitude and limitations of social position.

If you read Yeon-am's novel with this point of view, it would be possible to access newly to Yoen-am. You need close approach to his writing to

read Yeon-am's novel. Dualism of his novel and his writing which is summarized as victory and change are another way to understand Yeon-am.

Key Words: dualism, Yeon-am's novel, common people, the class of scholar, limitations